

영아의 애착 유형과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에 관한 연구

최해훈 이경숙

이화여자대학교 언어청각임상센터

김태련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의 애착에 대한 내적 표상이 영아의 애착 유형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영아의 애착 유형과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 간의 일치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 분류를 위해서는 '성인 애착 면접'을 사용하였으며 영아의 애착 유형 분류를 위해서는 '낮선 상황 절차'를 사용하였다. '성인 애착 면접'을 사용한 성인 애착 표상 유형의 분류는 본 연구를 통해서 처음 실시되었으므로 선행 연구와의 비교없이 성인 애착 표상 유형의 분포를 보고하였다. '낮선 상황 절차'를 사용한 영아의 애착 유형의 분류는 선행 연구들이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은 12-25개월 된 영아 30명과 그 영아의 어머니들로 모두 30쌍의 영아-어머니 쌍이었다. 30명의 영아 중 15명은 남아였으며 15명은 여아였다. 본 연구 결과 30쌍의 어머니-영아 중 20쌍에서 영아의 애착 유형과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이 일치함으로써 67%의 일치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양육자의 애착 표상 유형이 안정적인가하는 여부가 영아의 애착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Ainsworth(1978)가 영아의 애착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만들어낸 '낮선 상황 절차'가 선보인 이후 현재 서구의 애착이론가들은 Bowlby(1973)가 제시한 애착의 내적 실행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영아기 이후의 애착을 분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고안하고 그 도구들의 심리측정적 검증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결과가 Main(1985)이 만들어낸 '성인 애착 면접'이다. '성인 애착 면접'이 개발되면서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의 분류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양육자의 애착 표상 유형과 영아의 애착 유형간의 일치율을 고찰할 수 있게 되었다. 양육자의 애착 표상 유형과 영아의 애착 유형간의 일치율이 70%에 이른다는 보고(Van IJzendoorn, 1995)는 연구자들에게나 임상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0쌍의 영아-어머니를 대상으로 영아 애착 유형과 양육자 애착 표상 유형이 얼마나

일치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연구에서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아-어머니 간에도 애착 유형이 유의미하게 일치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관심 주제이다. 성인 애착 표상 유형과 영아 애착 유형 간에 유의미한 일치율이 보고된다면 이것은 건강한 아동 발달의 중요한 요소인 안정적 애착 형성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풀어가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부차적으로는 '낮선 상황 절차'를 통해 얻어지는 영아 애착 유형 분포와 '성인 애착 면접'을 통해 얻어지는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의 분포 결과를 각각 살펴볼 것이다. 영아 집단과 성인 집단 모두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적 애착 유형이 보고될 것인가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영아의 애착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된 '낮선 상황 절차'는 이미 국내 선행 연구들을 통해 많이 소개되었으므로 자세한 소개는 생략하고자 한다. 그러나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된 '성인 애착 면접'은 국내 선행 연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인 애착 면접'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I. 성인 애착 면접

Main과 그녀의 동료들(Main, George, & Kaplan, 1985)이 개발해낸 '성인 애착 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은 애착과 관련된 성인의 내적 실행 모델을 측정하고자 한다.

한 시간 정도 소요되는 반구조적 면접동안, 아동기(5세-12세)의 각 부모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5개의 형용사, 그 형용사와 관련된 특정 기억들, 어느 쪽 부모와 더 친했는지, 왜 특정 부모와 더 가까웠다고 느끼는지, 부모에게 거절당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험들이 있는지, 부모에게 위협 당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험들이 있는지, 의미 있는 타인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지,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

는 지, 부모와의 경험이 현재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부모와의 관계는 어떠한지와 같은 질문들이 진행된다.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동안에 각 성인은 부모와의 경험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되며 그 경험이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는 상관없이 자신 스스로가 그 경험을 어떻게 표상하고 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언어상의 특징을 보인다.

Main(1985)은 이 각기 다른 언어상의 특징에 따라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the state of mind with respect to attachment)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그것이 자율형(F), 무시형(Ds), 몰입형(E) 그리고 미해결/비조직형(U/d)이다. 이 중에서 자율형은 안정적인 상태인 반면 무시형과 몰입형은 불안정한 상태로 간주된다. 그리고 미해결/비조직형의 경우에는, 중요한 타인의 죽음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적, 성적 학대와 같은 특정적 외상경험에 대해서 아직 정서적인 해결을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자율형의 성인은 자신의 부모와의 어린 시절 경험이 좋은 것이었던 힘든 것이었던 간에 비교적 일관적이고 응집력 있게 통찰하고 있는 반면 무시형, 몰입형의 성인은 응집력이 떨어지고 일관되지 못한 표상상태를 드러낸다. 미해결/비조직형의 성인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응집력을 보이지만 외상(trauma)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비조직적인 대응방식을 드러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도 외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응집력이 같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한 성인이 미해결/비조직형으로 분류될 때에는 반드시 자율형, 무시형, 몰입형 중에 2차적으로 알맞는 유형을 다시 분류해서 함께 적어둔다.

Main(1985)은 성인의 애착 표상이 안정적인지를 분류하고자 할 때 어린 시절의 경험과 관련된 담화 내용이 '응집력(coherence)'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가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Main은 담화 내용의 응집력이라는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 언어철학자인 Grice(1975)의 개념을 빌어왔다고 밝히고 있다. Grice에 의하면 응집력

있는 담화란 다음의 네 가지 요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질적인 측면이다. 이것은 담화 내용이 진실된 것인지를 다룬다. 이전에 말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담화 내용은 질적인 측면을 파괴한 것이 된다. 둘째는 양적인 측면이다. 이것은 담화 내용이 간단하면서도 완벽한가에 대한 것을 다룬다. 담화 내용이 불필요하게 길거나 짧으면 그 담화 내용은 양적인 측면을 파괴한 것이 된다. 셋째는 관련성의 측면이다. 이것은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곧 다른 주제로 빠져버린다면 이것은 관련성의 측면을 파괴한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양식의 측면이 있다. 이것은 어법상으로 명확하고 질서있게 이야기하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다룬다.

물론 어떤 담화도 이 네 가지 조건을 때 순간마다 충족시킬 수는 없으며 응집력 있는 담화라 해도 몇 차례 정도는 이 조건들을 파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조건을 너무 심하게 그리고 너무 자주 위반한다면 그런 담화는 응집력이 떨어지는 담화로 간주한다. 성인 애착 면접을 통해서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을 분류할 때, Grice가 제시한 조건들을 잘 만족시키고 있는가하는 문제는 분류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자율형으로 분류되는 담화내용은 전반적으로 Grice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즉, 응집력이 높으며 면접자에게 협조적인 모습이다. 자율형 성인은 애착의 가치를 소중히 하며 어떤 사건이나 관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담화내용이 신선하며 사려 깊다. 애착과 관련된 경험을 묘사하거나 평가할 때 그 경험이 즐거운 것이었던 혹독한 것이었던 간에 일관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 이 유형은 '낮선 상황 절차'를 통해 분류한 영아의 애착 유형 중 안정 애착형의 특징과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무시형으로 분류되는 담화내용은 응집력이 낮다.

무시형의 성인은 애착과 관련된 경험이나 관계를 의미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그 가치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부모나 부모와의 관계를 보통이나 보통이상으로 이상화(idealization)해서 묘사하지만 그러한 이상적 묘사를 지지하는데 실패하거나 오히려 정반대 되는 경험을 나열하기도 한다. 이것은 Grice의 조건 중에서 질적인 측면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또 무시형의 성인 중에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해서 대화를 자주 차단하고 나서는 애착이 아닌 다른 주제를 얘기할 때는 생생한 기억을 제공함으로써 이전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것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차단은 주어진 질문에 대한 지나치게 짧은 대답으로서 Grice의 조건 중 양적인 측면을 파괴하는 예가 된다. 이 유형의 특징은 '낮선 상황 절차'로 분류한 영아의 애착 유형 중 불안정-회피형의 특징과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몰입형으로 분류되는 담화내용도 응집력이 매우 떨어진다. 몰입형의 성인은 애착과 관련된 경험이나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다. 일부는 분노에 찬 몰입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일부는 전반적으로 수동적인 몰입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담화내용이 주제를 벗어나 괜히 길어지거나 문법적으로 엉키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분명한 의미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Grice의 조건 중에서 양적인 측면, 관련성의 측면, 양식의 측면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이 유형의 특징은 '낮선 상황 절차'로 분류한 영아의 애착 유형 중 불안정-갈등형과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미해결/비조직형의 경우에는 애착 대상의 상실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도중에 담화내용이나 추론과정에서 현저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성인이 외상(trauma)을 아직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주제에 관한 한 아직 혼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I. 애착의 세대간 전이

'성인 애착 면접'의 개발은 영아기 이후의 애착 표상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는 노력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의의를 갖을 뿐 아니라 양육자의 애착 표상 유형이 영아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 그래서 '성인 애착 면접'의 개발 이후 서구에서는 영아의 애착 유형과 부모의 애착 표상 유형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는 성인이 가진 애착의 내적 표상이 어떻게 영아의 애착 유형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Main과 Goldwyn(1984)은 안정애착형 영아를 가진 어머니가 자율형으로 분류되고 불안-회피애착형 영아를 가진 어머니가 무시형으로 분류되고 불안-갈등애착형 영아를 가진 어머니가 몰입형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75%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그 이후로도 많은 연구들이 영아의 애착 유형과 양육자의 애착 표상 유형간의 상당한 일치율을 보고해 왔다(Ainsworth & Eichberg, 1991; Grossmann et al., 1988; Main, Kaplan & Cassidy, 1985; Slade et al., 1991; Van IJzendoorn et al., 1991). 또한, 이상의 회고적 연구들과 반대로 임신한 여성의 애착 표상 유형을 먼저 분류하고 나중에 태어난 영아의 애착 유형을 분류한 조망적 연구들에서도 상당한 일치율을 보고하고 있다(Benoit & Parker, 1994; Fonagy, Steele & Steele, 1991; Radojevic, 1992; Ward & Carlson, 1995). 최근에 Van IJzendoorn(1995)은 854쌍의 어머니-영아를 포함한 18개의 독립된 샘플을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실시했는데 역시 70%의 일치율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생애초기에 형성한 애착유형을 통해 각 개인이 소유하게 되는 내적 실행 모델이 평생동안 지속될 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전이된다는 Bowlby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연령이 만 12개월에서 25개월 범위에 속하는 정상 영아 30명과 그 영아들의 어머니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상영아는 덴버 발달 선별 검사(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와 사회성숙도 검사를 통해서 정상 범위에 속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영아의 성비는 각각 남아가 15명(50%), 여아가 15명(50%)으로 구성되었다. 대상 영아의 최저 연령은 14개월이었고 최고 연령은 25개월 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9개월 이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산층 이상으로 통제하였으며, 형제 유무에서는 단 한 명만이 형을 가지고 있을 뿐 나머지는 형제가 없었다. 대상 영아의 연령 분포를 보면 12-16개월의 영아가 7명(23%)이었으며 17-21개월의 영아가 16명(54%), 22-25개월의 영아가 7명(23%)이었다.

대상 어머니들의 최저 연령은 26세였고 최고 연령은 39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30세였다. 26-30세의 어머니가 20명(67%), 31-35세 어머니가 9명(30%), 36세 이상의 어머니가 1명(3%)이었다. 대상 어머니들의 학력은, 30명 중 4명(13%)이 고졸, 2명(7%)이 전문대졸, 22명(73%)이 대졸, 2명(7%)이 대학원 졸업의 분포를 보였다. 대상 어머니 30명 중 5명만이 직업이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25명은 가정 주부이다.

2. 연구 절차

30쌍의 영아-어머니가 실험자가 낸 광고를 보고 참가신청을 했으며 실험은 이화여자대학교 부설 언어 청각 임상센터에서 실시되었다. 우선 아동의 발달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덴버 발달 선별 검사와 사회성숙도 검사 그리고 간단한 면접이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아동의 애착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낯선 상황 절차를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애착

표상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 애착 면접을 실시하였다. 전 과정은 두 시간 반에서 세 시간정도가 소요되었다.

1) 면접과 사회성숙도 검사 및 멤버 발달 선별 검사의 실시

간단한 면접은 영아의 건강, 영아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현재 영아와 어머니가 처한 환경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나머지 두 개의 발달 검사는 아동의 정상발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또한 마지막에 실시될 성인 애착 면접을 위한 피험자와 연구자간의 라포 형성을 이차적 목표로 하였다.

2) 낮선 상황 절차의 실시

낮선 상황 절차는 전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애착 유형 분류 시에는 분류의 신뢰도를 위해서 1996년 6월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에서 낮선 상황 절차 분류를 위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다섯 명의 평정자들이 세 명씩 번갈아 가며 분류하였다. 30명의 피험자에 대해서 관찰 일치도는 86%였으며, 일치되지 않았던 4명의 피험자에 대해서는 재차 비디오를 보며 협의를 통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3) 성인 애착 면접의 실시

낮선 상황 절차가 실시된 후 영아와 어머니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방을 옮겨 영아가 자유놀이를 하도록 유도한 후 어머니에 대해 성인 애착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의 전 내용을 녹음했으며 녹음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트랜스크립트(transcript)을 만들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성인 애착 면접의 분석을 배우기 위해 1997년 1월 미국의 버클리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in Berkeley)에서 열렸던 성인 애착 면접 연수에 참가했다. 연수내용을 토대로 애착 관련 논문을 쓴 전문가에게 분석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 후 트랜스크립트의 분석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분석의 신뢰를 기했다. 본

연구자와 또 다른 분석가간의 분석일치도는 90%였으며 이견을 보였던 사본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상세히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이견을 조정하였다.

3. 측정 도구

1) 낮선 상황 절차

낮선 상황(Ainsworth, 1973)이란 영아에게는 낯선 환경이 될 장난감이 있는 실험실에서 영아가 어머니와의 격리, 재결합, 낮선 이의 출현과 같은 상황에 대해 나타내는 행동들을 관찰하여 영아의 애착 유형을 분류하도록 고안된 구조화된 관찰상황이다. 낮선 상황 절차에 의해 영아는 안정 애착, 불안-회피 애착, 불안-갈등 애착,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의 4가지 유형 중 한 가지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Schneider-Rosen(1990)의 애착 유형 분류 준거와 12-18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한 Sroufe(1996)의 애착 유형 분류 준거를 토대로 하였다.

2) 성인 애착 면접

성인 애착 면접(Main et al, 1985)은 한 시간 정도 진행되는 반 구조화된 면접으로서 초기 애착 경험과 관련된 주제를 다양하게 질문함으로써 피면접자로 하여금 애착 경험에 대한 자신의 표상 상태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성인 애착 면접을 통해서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을 자율형, 무시형, 몰입형, 미해결/비조직형의 네 가지 중 한가지로 분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Main & Goldwyn(1996)의 성인 애착 표상 유형 분류 준거를 근거로 하였다.

4. 자료처리

1) 영아의 애착 유형 분포와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 분포는 각각 빈도와 백분율로 보고했다.

2) 4개의 영아 애착 유형과 4개의 성인 애착 표

상 유형간의 일치율이 유의한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χ^2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피험자가 30명인 관계로, χ^2 분석을 실시할 때는 획득도수와 기대도수가 5보다 작은 칸(cell)이 전체 칸수의 20% 이하여야 한다는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χ^2 분석을 실시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영아의 애착 유형과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간의 일치율은 빈도와 백분율로만 보고했다.

3) 영아의 애착 유형 중 안정 애착을 제외한 불안-회피, 불안-갈등,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의 세 가지 유형을 불안정 애착의 한 범주로 묶고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 중 자율형을 제외한 무시형, 몰입형, 미해결/비조직형의 세 가지 유형을 불안정 애착 표상 유형의 한 범주로 묶는다. 그래서 영아의 안정 애착과 성인의 자율적 애착 표상 그리고 영아의 불안정 애착과 성인의 불안정 애착 표상 유형간의 일치율이 유의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χ^2 분석을 실시했다.

IV. 연구결과

1. 낯선 상황 절차에 의한 영아의 애착 유형 분포

낯선 상황 절차동안 영아가 보이는 행동을 바탕으로 영아의 애착 유형을 안정 애착, 불안-회피 애착, 불안-갈등 애착,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으로 분류하였다. 낯선 상황 절차로 분류한 영아의 애착 유형 분류에서는 57%인 17명이 안정 애착으로, 3%인 1명이 불안정-회피 애착으로, 27%인 8명이 불안정-갈등 애착으로, 그리고 13%인 4명이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으로 분류되었다.

2. 성인 애착 면접에 의한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 분포

성인 애착 면접을 통해 성인이 보이는 애착 주제와 관련된 담화의 특성에 따라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을 무시형, 자율형, 몰입형, 미해결/비조직형으로 분류하였다. 성인 애착 면접을 통한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 분류에서는 47%인 14명이 자율형으로, 10%인 3명이 무시형으로, 33%인 9명이 몰입형으로, 그리고 10%인 3명이 미해결/비조직형으로 분류되었다.

3. 영아의 애착 유형과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간의 일치율

안정 애착으로 분류된 17명의 영아 중 65%인 11명 영아의 어머니들이 자율형으로 분류되었다. 불안정-회피 애착으로 분류된 영아는 단 1명이었는데 그 영아의 어머니도 역시 무시형으로 분류되었다. 불안정-갈등 애착으로 분류된 8명의 영아 중 63%인 5명 영아의 어머니들이 몰입형으로 분류되었다.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으로 분류된 4명의 영아 중 75%인 3명 영아의 어머니들이 역시 미해결/비조직형으로 분류되었다.

전체적인 일치율은, 30쌍의 어머니-영아 중에서 20쌍이 영아 애착 유형과 성인 애착 표상 유형간의 일치를 보임으로써 67%의 일치율을 나타냈다.

4. 영아의 안정애착과 성인의 자율적 애착 표상 유형, 영아의 불안정 애착과 성인의 불안정 애착 표상 유형의 χ^2 분석

낯선 상황 절차를 통해 분류된 영아의 안정 애착과 성인 애착 면접으로 분류된 성인의 자율적 애착 표상 유형간에 보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2(영아의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 * 2(성인의 자율적 애착 표상과 불안정 애착 표상) χ^2 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아가 안정 애착으로 분류되면서 성인도 자율적 애착 표상으로 분류되는 쌍은 모두 11쌍으로 37%였으며, 영아가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되면서 성인도 불안정 애착 표상으로 분류되는 쌍은 모두 10쌍으로 33%였다. 영아는 안정 애착으로 분류되었으나 성인은 불안정 애착 표상으로 분류된 쌍은 6쌍으로

20%였다. 반대로 영아는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되었으나 성인은 자율적 안정 애착 표상으로 분류된 쌍은 3쌍으로 10%를 차지하였다. 영아의 안정 애착 성인의 자율적 애착 표상, 영아의 불안정 애착 성인의 불안정 애착 표상간에 보이는 일치율은 70%(30쌍 중 21쌍)이다. χ^2 분석 결과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과 영아의 애착 유형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chi^2=5.129$, $p < 0.05$).

V. 논의

가. '낮선 상황 절차'에 따라 영아의 애착 유형을 분류했을 때, 30명의 영아 중에서 57%가 안정 애착, 27%가 불안-회피 애착, 3%가 불안-갈등 애착, 13%가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으로 분포하였다. 이러한 분포는 '낮선 상황 절차'가 고안된 미국에서의 일반적인 네 유형의 분포(Ainsworth, 1978; Goldberg, 1995)와 다른 모습이다. 즉, 안정 애착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비슷하나 미국 집단에서는 불안-회피 애착이 불안-갈등 애착보다 우세한 반면 본 연구의 샘플에서는 불안-갈등 애착이 더 우세하다.

불안-갈등 애착 유형이 안정 애착 다음으로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은 Miyake(1985)의 일본 샘플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것은 일본 집단의 분포를 이해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영아들이 미국의 영아들에 비해 독립적이기보다는 의존적으로 키워진다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서 이해해볼 수 있다. Ainsworth(1978)는 영아가 보통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애착의 기능이 가장 잘 활성화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독립적 양육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미국 문화에서는 낮선 상황에 영아가 혼자 남는 것이 보통 정도의 스트레스로 가정된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와 영아간의 근접성이 강조되며 의존적 양육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우리 문화에서는 낮선 상황에서 혼자 남겨지는 것이 미국 영아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미국 영아들보다 진정되는 시간이 길게 걸릴 수 있고 그래서 불안-갈등 애착으로 더 많이 분류되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의 고려에 대해 일본 학자인 Takahashi(1986)는 애착의 유형을 측정할 때 영아가 낯선 상황 절차를 통해 느끼는 스트레스는 문화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그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특성을 분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정이 상당히 설득적이기는 하나 확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데 그 이유는 본 연구의 단일 샘플만으로는 문화적 차이를 완전히 설명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애착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다. 실제로 Van IJzendoorn과 Kroonenberg(1988)는 낮선 상황 절차를 이용한 미국과 여러 문화의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실시한 후, 독일 샘플과 일본 샘플 등에서 보인 차이가 문화적 차이라기보다는 문화내의 표집 차이임을 주장했다. 단일 표집만으로는 문화적, 국가적 차이에 대해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들과 비교해서도 본 연구에서의 애착 유형 분포는 다른 모습을 띤다. 국내에서 낮선 상황 절차를 이용했던 연구들 중에서 이순행(1995), 박숙경(1996), 송지운(1996)의 연구에서는 반응성 애착 장애아와의 비교를 위해 연령을 맞추었기 때문에 정상 아동의 평균 연령이 모두 3세를 넘는다. 그러므로 이 연구들에서는 본 연구와는 다른 2세 이상 아동을 위한 애착 유형 평정 체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본 연구와의 비교에서는 제외시키고자 한다. 그 외에 연구들은 본 연구와 대상 영아의 연령 범위는 같으나 애착 유형의 분포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나유미(1997)의 연구를 제외한 다른 연구들은 대체로 Ainsworth(1978)의 분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분포 모습을 보인다. 즉, 안정 애착으로 분류된 영아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불안-회피형 영아, 불안-갈등형 영아의 순이다. 그러

나, 위의 연구들은 낯선 상황 절차에서 6번 에피소드를 생략하여 실험의 절차를 수정했거나(김종순, 1989; 유효순, 1985; 이영환, 1993; Lee, 1983), 평정체계를 수정하는 등(김종순, 1989; 유효순, 1985), 대부분이 Ainsworth의 실험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성인 애착 면접'을 통해서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을 분류했을 때, 30명의 어머니 중에서 47%가 자율형, 10%가 무시형, 33%가 몰입형, 10%가 미해결/비조직형으로 분포하였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율형이 45-55%, 무시형이 20-35%, 몰입형이 10-15%, 미해결/비조직형이 10-15%정도로(Goldberg, 1995) 보고됨으로써 본 연구 결과와는 다른 분포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무시형보다는 몰입형의 성인이 더 많이 보고되었다.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이 영아의 애착 유형 형성에 영향을 끼쳐서 애착 유형이 세대에 걸쳐 전이된다는 가정에 의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애착 유형 중에서 불안정-회피 유형보다는 불안정-갈등 유형이 더 많이 보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에서도 무시형보다는 몰입형이 더 많이 보고된다는 본 연구자의 예상과 일치하는 연구 결과이다.

국내에는 성인 애착 면접을 이용하여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을 분류해보고자 했던 선행 연구는 없다. 다만 이영환(1993)의 연구에서는 Epstein(1983)의 부모-포래 척도(Mother-Father-Peer Scale: MFPS)를 사용하여 성인의 아동기 경험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Epstein의 부모-포래 척도도 개인의 초기 경험을 통해 내재된 자아 및 애착 대상에 대한 실행 모델이 부모로서의 양육태도를 차별화 한다는 주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그러나 이영환의 연구에서는 영아의 애착 유형에 따른 성인의 아

동기 경험에 대한 지각의 유의한 차이를 밝히지 못하였다. 이것은, Epstein의 부모-포래 척도가 총 70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로서 성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적 표상을 충분히 탐색하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연구자인 이영환 스스로도 질문지를 통해 성인의 아동기 경험이 변별력 있게 체크되지 못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질문지법보다는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경험을 어떻게 지각하고 표상 하는지를 밀도있게 다루어야만 영아의 애착 유형 형성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다. 낯선 상황 절차로 분류한 네 개의 영아 애착 유형과 성인 애착 면접으로 분류한 네 개의 성인 애착 표상 유형간의 일치율은 67%로 나타났다. 30쌍의 어머니-영아 중에서 20쌍이 영아 애착 유형과 성인 애착 표상 유형간의 일치를 보인 것이다. 이것은 Van IJzendoorn(1995)이 18개의 독립된 샘플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메타 분석 결과인 70%의 일치율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안정 대 불안정으로 유형을 4가지에서 2가지로 묶었을 때의 일치율은 70%이며,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인 애착 표상 유형에 따라 영아 애착 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chi^2 = .51293$, $p < .005$). 이것은 영아의 안정 애착 유형과 성인의 자율적 애착 표상 상태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애착 표상 상태를 유지하는 성인의 영아가 안정적인 애착 유형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나머지 세 개의 유형끼리는 χ^2 분석을 실시할 수는 없었지만, 불안정-회피 애착아로 분류된 영아 1명의 어머니도 역시 무시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불안정-갈등 애착아로 분류된 영아들 중에 63% 영아의 어머니들이 역시 몰입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아로 분류된 영아들 중에 75%

영아의 어머니들이 역시 미해결/비조직형으로 분류되었다. 비록 통계적 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은 백분율어기는 하나 불안정한 애착 표상 상태를 유지하는 성인의 영아일수록 불안정적인 애착 유형을 형성할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보충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영아의 애착 유형과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은 100%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치율을 통계적으로 검증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외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transmission gap"(Van IJzendoorn, 1995)이라는 개념으로 제안하고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애착에 관한 내적 실행 모델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된 변인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한다.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에서 형성한 애착의 내적 실행 모델은 각 개인의 여러 다른 분야의 발달에까지 영향을 끼치며 성인이 된 후에까지 지속되어서 다음 세대에까지 전이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많은 애착 연구들이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과학적인 지지를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본 연구도 그러한 애착 전이의 일부분을 밝혀보고자 영아의 애착 유형과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간의 일치율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 결과는 주의해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성인 애착 면접은 국내에서는 처음 사용되어진 도구이며 아직은 표준화된 도구가 아니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또한 30쌍의 피험자로는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많은 반복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종순(1989). 영아의 애착, 자아인식 및 사물영속성 보존 능력과 가정환경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나유미(1997).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박숙경(1996). 애착장애아의 어머니-아동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박용임(1994). 영아어머니 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송지윤(1997). 애착장애 아동의 애착 Q-sort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유효순(1985). 애착유형과 탐색행동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이순행(1994). 반응성 애착장애아동의 애착 특성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이영환(1993). '낮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Ainsworth, M. D. S. & Eichberg, C.(1991). *Effects on infant-mother attachment of mother's unresolved loss of an attachment figure or other traumatic experience.* In C. M. Parkes, J. Stevenson-Hinde & P. Marris(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London and New York:

- Tavistock/Routledge.
- Ainsworth, M. D. S., Blehar, M. C. & Waters,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enoit, D. & Parker, K. (1994). Stability and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s. *Child Development*, 65, 1444-1456.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Epstein, S. (1983). *The Mother-father-peer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assachusetts-Amherst.
- Fonagy, P., Steele, H. & Steele, M. (1991). Matern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during pregnancy predict the organization of infant-mother attachment at one year of age. *Child Development*, 62, 891-905.
- Goldberg, S., Muir, R. & Kerr, J. (1995). *Attachment Theory: Social, develop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s*. Analytic Press: Hillsdale.
- Grice,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L. Moran (Eds.), *Syntax and Semantics III: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 Grossmann, K., Fremmer-Bombik, E., Rudolph, J. & Grossmann, K. E. (1988). Maternal attachment representations as related to patter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d maternal care during the first year. In R. A. Hinde & J. Stevenso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Y. (1983). *Impact of family structure on variations in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infant's attachment patter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Main, M., George, C. & Kaplan, N. (1985). *The Berkeley Adult Attachment Interview*. Unpublished protocol.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Main, M. & Goldwyn, R. (1984). Predicting rejection of her infant from mother's representation of her own experience: Implications for the abused-abusing intergenerational cycle. Special Issue: Infant mental health--from theory to intervention. *Child Abuse & Neglect*, 8, 203-217.
- Main, M. & Goldwyn, R. (1996). *Adult Attachment Classification System*.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66-104.
- Miyake, K., Chen, S. & Campos, J. J. (1985). Infant temperament, mother's mode of interaction and attachment in Japan: An interim report. In I. Bretherton &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 276-297).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Radojevic, M.(1992). *Predicting quality of infant attachment to father at 15 months from prenatal parent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An Australian contribution*. Presented at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Brussels, Belgium.
- Schneider-Rosen, K.(1990). The Developmental Recognition of Attachment Relationships: Guideline for Classification beyond Infancy.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 Interven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lade, A., Director, L., Grunebaum, L. B., Haganir, L. S. & Reeves, M. V.(1991). Representational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prebirth maternal attachment. In H. Steele, *Parent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Links across generations*. Symposium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 Sroufe , A.(1996) *Alan Sroufe's Guidelines for Conducting and Coding the Strange Situatio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nnesota.
- Takahashi, K.(1986). Examining the Strange Situation procedure with Japanese mothers and 12-month-ol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265-270.
- Van IJzendoorn, M. H.(1995).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 387-403.
- Van IJzendoorn, M. H., Bakermans-kranenburg, M. J., Zwart-Woudstra, H. A., Van Busschbach, A. M. & Lambermon, W. E.(1991). Parental attachment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Some findings on th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4, 375-394.
- Van IJzendoorn, M. H., Kroonenberg, P. M.(1988) Cross cultural patterns of attachment: meta-analysis of the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59, 147-156.
- Ward, M. J. & Carlson, E. A.(1995). Associations among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maternal sensitivity, and infant-mother attach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66, 69-79.

A Study on Agreement between Child Attachment Classification and Adult Representational Level of Attachment

Hae-Hoon Choi, Kyung-Sook Lee, Tae-Lyo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Eawha Womans University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ordance between infant's attachment pattern and mother's state of mind with respect to attachment to her own parents. The second purpose is to re-examine the distribution of infant attachment patterns and compare this result with the result of the preceding study. The third purpose is to examine the distribution of adult's state of mind with respect to attachment.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were 30 infant-mother dyads. The infants were 12-25 months old. The infant's patterns of attachment were classified with the Strange Situation.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was used for classifying the adult's state of mind with respect to attach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mong 30 infants, 57% were classified as secure(B group), 3% were classified as anxious-avoidant(A group), 27% were classified as anxious-resistant(C group) and 13% were classified as disorganized-disoriented(D group). This distribution is different from Ainsworth's and previous study in Korea because C group is reported higher than A group.

2. Among 30 adults, 47% were classified as autonomous(F group), 10% were classified as dismissing(Ds group), 33% were classified as preoccupied(E group) and 10% were classified as unresolved-disorganized(Ud group). This distribution is also different from Main's because E group reported higher than D group.

3. Exact A/B/C/D and Ds/E/F/Ud agreement was observed in 20 of 30 dyads(67%). In 21 of 30 families(70%), the correspondence between autonomous mother attachment and secure infant attachment and nonautonomous mother attachment and insecure infant attachment was observed.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adult's state of mind with respect to attachment could affect infant's attachment pattern.